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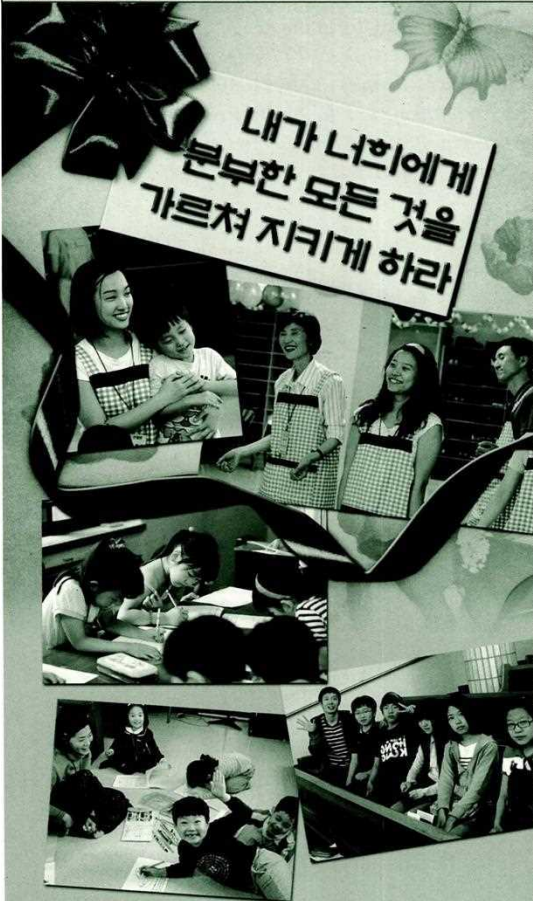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총회 교회
성도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의)

약속은 지속적인
성취를 포함한다

예언은 비교적 기록이 없이 수평적이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안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나 약속은 예언과 다르다. 약속에는 관계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은 이삭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갔다.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창 17:19-21; 출 17:1). 이 약속은 단 하나 뿐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의 예수님, 그리고 열방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갈 3:7, 16, 19).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의 결과물로서 여러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약속과 성취, 새롭게 전개되는 약속과 새로운 성취가 역사를 통하여 반복되며 그 범위 자체가 넓어진 것이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살도록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 즉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초점이 된다(출 19:4-6; 수 1:2-4). 여러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전부를 차지하여 통치된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다. 이 약속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B.C. 587년) 다윗의 왕가가 끝났기에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사 40:9-11).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역사적으로 약속이 진행된 모습을 보면 그 순서가 비순환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 출애굽, 시내산, 가나안 정복, 다윗, 포로 순으로 약속은 계속 진행된다. 이것을 볼 때에 구약 안에는 약속과 약속의 완성, 또 새로운 약속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패턴은 역사 속에서 수 세기를 걸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약속이 완성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님을 이 패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마 1:17).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증명하며 새롭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약속의 총 완성은 본래 있었던 약속 안에 자세하게 기록된 모양과는 다를 수 있음을 기대하도록 준비시키신다(요 8:56-58).

원수들은 제쳐 놓고 그를 믿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자신과 그 사역 안에서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 요한도 설해하였고 그의 제자들도 모두 실패했다(마 11:2-3).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있다(골 1:13-17). 예수는 아브라함의 한 씨다. 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 씨가 우주의 주인이 되고 열방이 된다(골 1:26-27).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곧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업을 함께 나눌 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유월절 양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새 출애굽을 성취하였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증보자가 되었다. 그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의 삶은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능가하여 다 성취하였다. 곧 회개와 제사장적이다(히 8:1-2).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구약 성령이 말하는 모든 것의 완성이 무엇인지 밝혔다(히 8:8, 10-11).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과 규정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구약은 예언하였고 이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마 5:2). 그러나 우리가 본래로 마태가 이해하는 약속과 완성은 단순한 예언을 훨씬 넘어간다.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집할 때에 '약속'이란 범위 안에 있는 그 본질을 놓쳐 버릴 수가 있다. 이 약속 안에는 다양한 잠재력과 또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완성의 수준이 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이 사명이 순종하고자 우리 교회는 천국일문 양성의 목표 아래, 20개 교회학교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조직 및 운영되고 있는 교회학교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 본부한 모든 것'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요 6:40). 1000여 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눅 15:4).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험한 밭길을 마다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기도해 주십시오(고전 2:2). 특히,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해당 교회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행방'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행 8:35).

LET'S GO FISHING

⁽¹⁾After these things Jesus manifested Himself again to the disciples at the Sea of Tiberias, and He manifested Himself in this way. ⁽²⁾Simon Peter, and Thomas called Didymus, and Nathanael of Cana in Galilee, and the sons of Zebedee, and two others of His disciples were together.

... ⁽¹³⁾Jesus came and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the fish likewise.

⁽¹⁴⁾This is now the third time that Jesus was manifested to the disciples,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John 21:1~14)

In today's Bible passage the Risen Lord appeared to seven of His disciples in Galilee, "Simon Peter, and Thomas called Didymus, and Nathanael of Cana in Galilee, and the sons of Zebedee, and two others of His disciples were together"(Jn. 21:2). These seven men had followed Jesus for three and a half years. They fully experienced His earthly ministry. They witnessed His cross and resurrection. Jesus told them that He would meet them in Galilee three days after His death, "But after I have been raised, I will go ahead of you to Galilee"(Mk. 14:28). These seven disciples went down to Galilee because they wanted to see Jesus. Their acquaintances probably looked at them as failures because their Master had died and they no longer had a job. Before meeting Jesus these men worked as fishermen. Coming back to their hometown reminded them of their previous employment, and with nothing else to do Peter decided to go fishing. His fellow disciples liked the idea, and so they all went fishing together.

The sounds and smell of the sea called these friends to go fishing. They couldn't resist the opportunity. Jesus did not rebuke Peter for going fishing; He rebuked him for denying Him three times. When Peter said, "I am going fishing," his six friends chimed in, "We will also come with you"(Jn. 21:3). Peter's decision impacted his friends. Our actions always affect other people. As Christians we need to remember that we live for Jesus Christ, "For not one of us lives for himself, and not one dies for himself; for if we live, we live for the Lord, or if we die, we die for the Lord; therefore whether we live or die, we are the Lord's"(Rom. 14:7~8). Christians are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has become tastel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foot by me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Mt. 5:13~14). If Jesus influences our saltiness and brightness, then good things follow, but if others or other things get in the way then bad things happen.

The fishing expedition turned into a night of catching nothing! How strange for all seven experienced fishermen to catch nothing, "They went out and got into the boat; and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Jn. 21:3). It's like a farmer who sows seeds but doesn't reap anything or a doctor who administers care but the patient doesn't improve at all. What a frustrating night for these men. I'm sure they tried many different things

but nothing worked and all their labor was in vain. Their pride as fishermen had to be bothering them. Without Jesus their work was for nothing. No matter what they did or didn't do on that boat it all amounted to no fish. What a bizarre occurrence for seven professional fishermen.

The Master came and a miracle happened, "But when the day was now breaking, Jesus stood on the beach; yet the disciples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So Jesus said to them, 'Children,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They answered Him, 'No.' And He said to them, 'Cast the net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a catch.' So they cast, and then they were not able to haul it in because of the great number of fish"(Jn. 21:4~6). Jesus brings morning to our lives, so that the night goes away. He is the "Sunrise" from on high (Lk. 1:78). Jesus asked His disciples a pure and simple question, and His disciples shamefully and humbly answered. When Jesus told them to throw the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they didn't question Him or debate with Him about His level of expertise in fishing, but humbly listened. Their obedience brought His amazing miracle to light. When John realized it, he told Peter, "It is the Lord"(Jn. 21:7). When Peter heard John's words he immediately jumped into the water to get to Jesus, "So when Simon Peter heard that it was the Lord, he put his outer garment on (for he was stripped for work), and threw himself into the sea"(Jn. 21:7). All seven hurried to be with the Lord.

Jesus was ready for them. He already prepared everything they needed to enjoy fellowship together, "Jesus said to them, 'Come and have breakfast.' None of the disciples ventured to question Him, 'Who are you?' knowing that it was the Lord. Jesus came and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the fish likewise. This is now the third time that Jesus was manifested to the disciples,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Jn. 21:12~14). The seven disciples enjoyed a lovely, lovely fellowship with the resurrected Jesus. This beautiful seashore celebration reunited them. Jesus had told them over three years ago not to catch fish because He was going to make them fisher's of men. He asked Peter three times in front of all the others if he loved Him, and then told him three times to care for His sheep.

My dear friends, let's come together with Jesus Christ and have a wonderful fellowship with Him for eternity. Amen.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²⁾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³⁾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요한복음 21:1~14)



김성판 목사

오늘의 성경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요 21:2). 이 7명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완벽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 삼 일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막 14:28). 이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을 알던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들을 실패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님은 죽었고, 그들은 무직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귀찮았을 때 그들은 이전에 했던 일을 떠올렸으며,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던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 제자들도 베드로의 생각에 동의했고, 그들은 모두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일렁이는 물결 소리와 바다 내음 앞에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꾸짖으셨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장단 맞춰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요 21:3). 베드로의 결정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7-8).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3~14). 우리의 소금 됴과 빛 됴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의 길이 막아선다면 악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

낚시는 밤새 이어졌지만 제자들은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7명의 숙련된 어부들 모두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니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요 21:3).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린 농부가 아무 것도 수확하지 못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병을 치료하

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다른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었습니다. 어부로서의 교만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의 사역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이 그 배 위에서 무엇을 했건 안 했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7명의 숙련된 어부들에게 이 무슨 기이한 사건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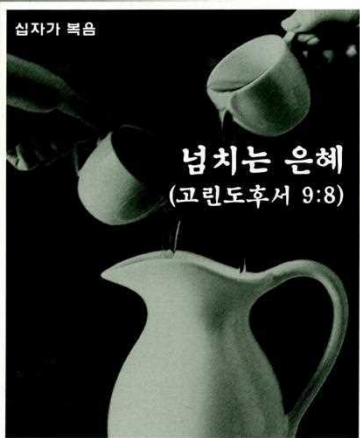
주님은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요 21:4~6).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침을 가져다주시자 밤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돋는 해’입니다(눅 1:7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 명료한 질문을 던지셨고, 제자들은 부끄러워하며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 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낚시에 대해 뭘 아시냐고 대꾸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이를 깨닫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고 즉시 물 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요 21:7). 결국 일곱 명 모두 서둘러 주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준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히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요 21:12~14).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해변에서의 이 아름다운 의식으로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3년도 전에,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시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물으셨으며, 그때마다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 그분과 영원토록 놀라운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



넘치는 은혜 (고린도후서 9: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이라는 고백보다 “왜?”라는 걱정뿐이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위해 사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일·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선언한다.

■ 자연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넘치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신 8:2-4). 넘치는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4).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연적인 신앙이어야 한다(출 17:6).

■ 측량하여 보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측량해 보아야 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부족이 없다(시 23:1). 양 떼를 돌보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먹이시며 안아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신다(사 40:11).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확신하게 된다(요 14:14).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가시적인 열매(요 15:16)이며, 그 시작은 복음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골 1:6).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흔들림 없는 확신의 자리로 인도한다(엡 3:20).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 18:14).

■ 증거하라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확신한다면 이제 나아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눅 19:13).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는 움직여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넘치는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 믿음의 길을 걸으라

넘치는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곧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와 동행하여 쓰시리다. “예수께서 나와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기준할 때 넘치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매순간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이 좋아요!” 아멘.

메시아의 죽음 78

유다의 도착

사도 요한은 유다를 “예수를 파는 유다”(요 18:2)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반해 마태와 마가는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마 26:47; 막 14:43)로 기술하였다. 누가는 이와 같은 설명을 더욱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마 22:3). 유다를 미혹한 사단은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도록 하였다.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갔다. 비록 만찬 후에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다(요 18:2; 마 26:45-47; 막 14:41-43).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갈 군인들과 어린 신호와 함께 어떻게 잡을지 철저히 계획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였다. 그 선봉에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후(골 6:12-13)에 세우신 열둘 중의 한 명인 유다가 있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탁월한 리더였으며, 재정을 담당했을 정도로 돈 계산에 능했던가.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을 때, 유다는 앞장 서서 이 사건을 비판했었다(막 14:3-9). 유다는 세상의 이치와 사리분별은 뻔했지만, 기독교가 역설이라는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

기독교는 역설적이다. 기독교의 진리, 성경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막힐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다. 믿음 이외의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는 십자가에 초점이 없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그의 초점은 항상 세상에 있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만을 생각할 뿐이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예수님까지도 배신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열둘 중의 하나”였던 유다처럼 교회의 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적인 모습 말고,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느브산에서 모세의 세 번의 간구(신 32:52), 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마 14:36),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바울의 세 번의 기도(고후 12:8)에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있었던 반면에, 사도 요한은 “열둘 중의 하나인 도마”(요 20:24)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도마가 예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란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이다”(요 20:28).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15교구 4팀

▶ 캄보디아는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농촌길 끝까지 가서 독립가옥 가정 가정을 사역하기로 하고 출발했다. 농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처음 접한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곳이 땅 끝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였다. (서진원 안수집사)

▶ 복음을 전하며 저의 열심이 아닌,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저의 팀으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적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며 추가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김선미 성도)

▶ 주요 도로에서 한참이나 들어간 마을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땅 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박현숙 집사)

▶ 5년 전 캄보디아 사역과는 많은 차이를 느꼈고, 어린 새싹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잘 자라서 캄보디아 교회의 선교사로 복음 확장에 앞장서기를 기도했다. 이 모든 사역이 우리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하심을 깊이 체험하였다. (오영자 권사)

▶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인도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파하게 하심으로 캄보디아 푸르스름에 하나씩 나라가 확장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박성성 집사)

▶ 오지 선교를 위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만난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그곳에 교회와 세워지려면 한 번의 전도시 임기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찬송을 반복해서 한 번 더를 외치며 외울 때까지 했다. 독목에 보

이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반복시키고 그 아이들을 통해 전하게 하고 따라하게 하여 확실히 교육시켰다. (유숙영 집사)

▶ 가옥이 드문 드문 있는 농촌 마을 깊숙한 곳을 선교지로 정했다. 문명의 손길이 채 닿지 못한 곳, 밀림 같기도 하고 황무지 같기도 하고 광야 같기도 하고 골짜기 같기도 한 그곳, 그곳에 주님을 만나려 애쓰는 삭개도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홍애자 집사)

▶ 아침에 결정한 사역지를 지나쳐서 안타까워 하던 우리들을 작은 학교로 인도해서서 교장 선생님께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듣게 하고 찬양하게 하였다. 약간의 부담을 앉은 채 들어갔던 이슬람 마을에서 만난 아이들의 환호, 커다란 사원이 자리 잡은 마을에서 만난 뿔뿔이 여인의 간절함 등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었다. (박숙진 집사)

▶ 첫 선교에서 열심이 문란을 받았지만 막상 떠날 때가 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중에 사원이 있는 데도 들어갔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도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도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정순 집사)

▶ 이번 선교는 나에게는 참 힘든 준비 기간이었다. 어느 때나 선교 준비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힘이 들어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다.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다음 선교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리라 다짐하지만 매번 같은 아쉬움이 남기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한다. (김진애 집사)

나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 그토록 갈망하던 선교를 지원하고 난 다음 날 업무를 정리하면서 다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4년 전에도 동말레이시아 선교훈련을 7개월이나 받고도 출발 직전에 고객사에서 대형 문제가 발생되어 선교를 가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부분 사업이라서 문제 해결 및 대응에 시간 제한이 없고 만약 선교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즉각 대응을 못하면 외국 협력사와의 협력 관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선교하기로 주님과 약속한 이상 내가 선교할 자격이 있으면 선교 기간 중 문제가 없게 준비해 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기도하였다. 선교 출발 전날 아니나 다를까 고객사에 새로 납입한 라인이 정지되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 배상을 제기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나는 주님께 간곡하게 간구하였다. "온갖 역경에서도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이 사역을 차질없이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침 고객사에는 예수님을 믿는 외국 협력사의 신참 사원이 대처 중이었다. 나는 그 직원에게 "내 선교 기간 동안 분사하고 잘 소통하여 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신참 직원의 기술이 부족하여 걱정이 되었지만 출발 직전 최종적으로 고객의 메일을 확인한 결과 '문제 해결 감사, 라인 정상 동작.' "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사역을 은혜 속에 마칠 수 있도록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곧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

박연수(안수집사, 19교구)

오로지 복음 전파만

▶ 전도하며 기도하며 먹고 자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먹고 자고. 오로지 복음 전파만 생각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다. 선교지에서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다. 처음 가는 선교였기에 백지 상태로 입했다. 우리의 어눌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금방 "아멘" 하고 회답하며 바라보던 맑고 선한 눈망울들, 나의 외로써는 결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할 뿐이다.

김소문(집사, 3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0일(화) ~ 5월 18일(수)	4교구 1팀	정봉선
5월 11일(수) ~ 5월 19일(목)	11교구 2팀	김복수
5월 11일(수) ~ 5월 19일(목)	21교구 1팀	함진옥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일(월) ~ 5월 9일(월)	19교구 2팀	김학희
5월 2일(월) ~ 5월 10일(화)	5교구 1팀	최동식
5월 2일(월) ~ 5월 10일(화)	7교구 1팀	이근우



초등2부 믿음과 4반

교회학교는 천국일꾼의 요람이다.

매주일 천국일꾼들로 세워버려야 하는 제교육관.

그 중 초등2부 믿음과 4반의 소문이 자자하다.

매주일 온갖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그 가르침에 거의 빠지지 않고 오는 학생들. 그들을 만났다.

-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어서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 주간충천, 교사회의 시간의 예습, 예배시간의 설교를 통해 분반공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의 신앙을 잘 지켜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적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풀과 나무가 비를 맞고 잘 성장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정생 선생님)
-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다혜)
- 말씀 듣는 게 재미있어요. (이수지)
- 성경 말씀을 보고 함께 문제를 푸는 게 재미있어요. (정재훈)
- 매주일마다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성훈)

중등부 학교 앞전도

매주 목요일이면 웬지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 앞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요일 하루이지만, 우리 중등부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매주 정해진 시간, 정해진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 오후 2시 40분 쯤이면 교회 근처의 한 중학교에 도착합니다. 학교에 도착해보면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미리 20분 정도 일찍 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면 학교 앞 전도를 위해 부장 장로님, 부감 권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3시가 되면 선생님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오늘도 만났네요"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길 잃은 어린 양도 보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힘을 붙여넣어 주십니다.

아이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빵을 들고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어 나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 충현교회 아이들을 구별해서 불러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대략 60명의 충현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다니기 때문에 한바탕 전경을 치러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교제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들을 귀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 소리를 듣고 친구와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아이를 보면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처럼 열매가 있는 학교 앞 전도는 삶의 활력이 됩니다.

이 봄에 꽃놀이를 마치고 학교 앞 전도가 더 좋다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하여 꽃들이 참 예쁘기는 하지만, 봄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주님과 영원히 볼 것인데 그걸 볼꽃 정도야' 하시며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하시는 모습이 '중등부 학교 앞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중등부 교사



"ALL" 모두가, "참" 참석하는, "DAY" 날. 어른들이 들으면 참 별난 이름을 지었다 하겠지만 요즘 애들은 그렇다. 이름 짓는 방법들이. 앞에 글자 따고, 뒤에 글자 따고, 영어 한 자 따고, 우리말에서 한 자 따고,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이 지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보려는 몸부림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느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편하게 느끼까,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같이 보려는 마음. '아이들은 이렇게 느끼나?', '아니,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보겠나?' 해마다 돌아오는 충동원 연례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이런 기회에 아이들에게 여가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이 되도록 해 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보통 때보다 떠들썩하다. '종성하게 간식이 있어서 그런가?', '선물로 아이들이 마음이 들었나?' 무엇이 되었건 이 종성함 나쁘지 않다. 벽에 천장에 바닥에 곳곳에 종성으로 색지로 리본으로 장식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 스스로 성숙도 하고, 친구들을 초대도 하고, 아이들도 수고를 많이 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반 아이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아, 선생님. 네, 잘 지내요. 아니요!" 하면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났다. 교회가 멀어서 친구 교외로 가는게 그곳이 좋다는 아이이다.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다 한다. "응, 그러면 됐지." "네, 아니요. 근데요" 하면서 조용히 자기 의사를 말한 아이는 오지 않았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시험이라 바쁘다고 했다. 자기 생각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선택했다. 집 근처나 학교 근처에서 만나면 해맑게 웃고 스스럼없이 대하는 한 친구는 아까와 대등하게 고등부가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요일 아침, 자고 있는데 울리는 전화는 절대 받지 않는다. 친구가 더 좋다 한다. "그 친구랑 같이 오면 되잖아?"라는 말에 그 남 웃는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철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 "선생님,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랜 꼭 갈 수 있어요." 언제나 풀한 아이. 그러나 오는 것은 주일이 되어 봐야 한다. 풀하게 안 오는 쪽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6시가 넘자 답답히 문자를 날리는 아이도 있었다. "선생님, 저 이제 예배드렸어요." "그래, 너무나 잘했구나." 답문자를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주님은 이렇게 크신데.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분반공부 선생님이었다면 아이들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셨을 텐데...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이 항상 있는 아이들을 대해서 언제나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을 위해 많이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하는데 그치지 못하는 것이 죄송했다. 그러나 감사하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르러서 '주님, 사랑해요'라고 통쾌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 일을 같이 하고자 나를 부르고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다.



조은비(교사, 고등부)

우리 교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5월을 맞아 교구별로 영성훈련 및 집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들에게서

5월의 꽃향기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대신자 초청 전도집회에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생들을 교구 식구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생에게 만날 때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참현교회에 나오도록 순하게 전도하고 기도하였지만 동생은 사회생활에만 신경을 쓰고 주님을 외면하여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우연찮게도 서울에서 17교구 지역인 파주 교향신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마침내 새가족양육부에 등록하고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동생들 주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의의선사(전, 17교구))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

므로 충동원 전도집회가 주

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새가족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며 전날까지 불안

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었습니

다. 어린 아이 3명과 부부 온 가족이 참석한 가정, 시

집간 딸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온 가정 등. 많은 새가족들이 잘

모르는 예수님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

노라고 인사하며 고백

할 때 죄인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양승현(전집사, 16교구)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5교구와 연합으로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기도원에서 평일에 진행되는 집회와 일을 하고 있는 저는 도저히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며 기도하였고, 결국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따라 "일단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날 기도원에 가는 거다"라고 결정한 뒤 영성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기도원에 버스가 도착하자 많은 분들이 반겨 주셨고, 풍기가 맑아져서인지 가슴이 탁 트이고 숨쉬기가 너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영성훈련 때 주신 말씀과 공동체훈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은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들쳐들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세요, 주님!"

김민선(집사, 2교구)

나는 할머니다



나는 손자, 손녀를 가진 비교적 젊은 할머니이다. 어느 날 불행듯 둘째 아이를 출산

하고 나서, 일요일마다 가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며느리가 보기 안스러워서 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했다.

내가 특별한 행사가 없는 주일엔 교회에 갈 수 있다고 말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한참 아무 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큰 아이와 이제 갓 백일을 넘긴 둘째 아이를 데리고 혼자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아무

리 생각해도 무리인 것 같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며 착실히 믿음을 생활을 하

는 아들 부부에게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

무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동안 나름 성경을 필사하며, 틈틈이 책을 보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다녀보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지금 우리는 온갖 불의와 부패로 얼룩진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힘든 삶 속에 인생은 장기간이다. 명문대학에 진학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학 입학은 오히려 삶의 시작에 불과하듯이,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봉사

와 사랑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된 믿음을 생활은 이런 손자에서 작은 빛을 볼 수 있었다. 첫째의 유아세례 이후 나는 아이를 위해 주기도문을 외우자고 식사시간에 기도를 해 주었는데

대 아이는 그 시간을 무척 좋아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간단한 기도를 하고 틈틈이 찬양을 하면서 눈에 띄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역시 오랜 시간 열심히 절

을 다녔던 터라 마음속의 감정이 매우 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서서히 하나님으로

는 엄연한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아직도 완강한 태도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남편 역시 손자와 손녀의 세

례식에는 참여할 정도로 유아세례에 무언가 특별함을 느끼고 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로 인해 심한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시간의 흐름 속에 걸

어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모든 일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사실 앞에 가끔은 나 자신도 많이 놀라고 있다. 젊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과 우리 가족이 작은 하나님에 기쁨과 감사로

즐거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살아 계신 주님으로 우리

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앞으로의 삶 역시 모든 교인과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동함으로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또 내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빠른 시일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것이다.

김은희(성도, 19교구)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성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128	조아인	영아부	9	홍성	2149	임혜민	청년1부	4	이민숙
2129	여옥진	양육부	7	장봉준	2150	강대선	양육부	13	김정희
2130	배오영	양육부	12	유옥민	2151	이도희	중등부	17	양혜수
2131	황준조	양육부	17	박찬국	2152	민병철	대학부	18	김정옥
2132	이시홍		18	김현수	2153	김시백	양육부	21	장영애
2133	조미준	양육부	8	권하연	2154	최은정	양육부	18	양미희
2134	문국경	양육부	21	김정현	2155	이금자	양육부	1	박미애
2135	황그라	외선부	25	최규태	2156	이옥순	양육부	21	신영애
2136	외선부	외선부	25	신우성	2157	유종호	고등부	4	강성훈
2137	석영만		7	김진선	2158	정영선		8	정진숙
2138	김경옥	소말부	24	김국호	2159	백 송	고등부	18	유성희
2139	정정순	양육부	18	정구현	2160	송동희		12	송경희
2140	최종호	양육부	9	유종희	2161	조숙형	양육부	16	임희준
2141	이진진	초등1부	17	강인영	2162	정희라	양육부	17	이연숙
2142	박용진	양육부	16	김종민	2163	최희선	양육부	15	이은현
2143	박용진	중등부	18	이진현	2164	신나라	중등부	15	이은현
2144	권은주	고등부	12	최형숙	2165	유재정		7	조영현
2145	오은은	양육부	2	오승민	2166	남	외선부	25	김지선
2146	안민혜	양육부	19	최윤정	2167	한상운	양육부	4	
2147	이상준	양육부	5	박영집	2168	구민희	청년1부	20	전해숙
2148	김윤숙		20	유승민					

Copyright © 2011 출판사: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